

■ 2026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작가)
- 회의일시
 - (1차) 2026년 4월 7일(화) 13:30~16:00 / 온라인
 - (2차) 2026년 4월 15일(수) 13:00~18:30 ~ 16(목) 9:00 ~ 18:00 / 아르코미술관 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성원, 김정연, 김찬동, 전민경, 최창희

2026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은 지역 작가 발굴 및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예술 활동 기회와 더불어 비평 및 창·제작 프로모션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에서 작가를 발굴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속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과 중앙이 단계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취지와 목적으로 2026년에는 공모 지원 대상인 작가 추천 기관을 14개 광역 문화재단에서 10개 광역시·도립미술관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총 62명이 지원하였으나 이 중 15건은 행정결격(문화재단 및 미술관 미추천으로 자격 요건 불충족)으로 제외되어 47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1차 서류심의를 통해 30명을 선발하여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 16명을 선정하였다.

심의 기준에 따라 ‘작가 역량’ (70%),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 등의 ‘기대효과’ (30%)를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여기에 지역 안배와 함께 지역에서 매칭 가능 예산 등을 두루 고려하였다. 특히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높은 성장 가능성과 예술적 기량의 탁월함에도 평단에서 적절하게 주목받지 못하거나 도약이 필요한 지역 작가에게 창·제작 및 주요 미술관 전시 개최 지원 외 비평, 프로모션 등을 통한 국내외적인 예술활동의 확장을 지원하는 것에 적합한지가 우선 고려되었다. 즉 이미 국내외적 활동이 활발하다고 판단되는 작가는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지원 프로그램의 수용 가능성 및 이를 통한 발전 가능성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였다. 지역 안배 또한 마지막까지 논의한 부분이었다. 지역별 균형 선정을 지향하는 한편, 본 사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사업 목적 달성과 도약 지원이 필요한 예술가를 우선 선정하였다.

인터뷰 심의를 통해 심의위원단이 주목한 것은 지역에서 예술가들이 활동하면서 작품을 통한 비평가 등의 전문가와의 연계가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수도권 내 주요 미술관 전시를 통해 다양한 관객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본 지원사업 외에 각 지역문화재단에서 관람객 개발 및 비평가 등과의 연결 등을 보다 확장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본 사업은 지역에서 작가를 발굴하고 추천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지역과 중앙의 연계형 사업 구조로 진행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지역예술 도약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심의회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지원 대상 기준에 있어 추천 기관의 지원 수혜 이력의 1개년도는 그 대상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3개년도 정도로 확장하는 것을 심의위원들은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의 우수작가들이 추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므로 향후 지원사업 개선에 필히 고려되기를 요청하였다.

나아가 지원의 기회가 균등하게 마련되고 예술적 도약 지원 효과가 보다 증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 및 시도립미술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관심과 노력의 증대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심의기준에 있어서도 도약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현재 30%의 기대효과 지표 비중을 높이는 것도 논의되었다.

선정된 지원자는 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약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선정된 제작지원단의 창·제작 지원 및 프로모션 외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등이 연계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가와 제작지원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원사업의 목적하는 바의 성과를 충분히 도출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활동에 있어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국내외 활동의 기회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2026년 지역예술도약지원 심의위원회 일동